



친환경 오리농법

1. 오리농법의 정의와 유래

오리농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부터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으며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친환경농법이다.

오리는 다른 가축에 비해 질병이나 전염병에 강하고, 잡식성으로 높이 나 논, 개울 등에 방사할 경우 어류나 물가의 잡초 등을 먹음으로써 자연 사료를 이용할 수 있고 배설물은 유기질 비료가 되어 지력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점 등 오리를 인위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리의 자연적인 습성을 농사에 이용하는 것이다.

오리농법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 것은 1992년, 경남 창원군 부곡면 김대년씨(73) 농가에서 오리농법 첫 시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선보인 오리는 최성규씨가 일본 오리농법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렵게 가져온 알을 국내에서 부화해 탄생시킨 아이가모(合鴨), 청둥오리와 집오리를 교배, 육종한 것으로 체구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즉 오리농법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일본의 후쿠오카 지방에서 시작된 것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2. 오리농법의 필요성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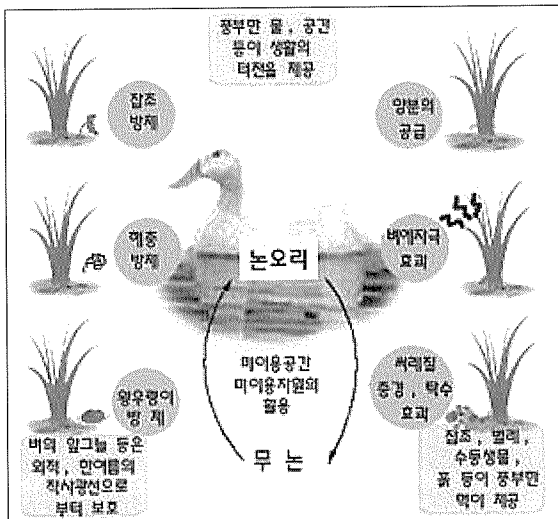
오리농법은 자연과 공생하는 세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친환경 농업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우렁이 농법등과 함께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법을 통해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친환경농업 참여가 예상되는 농가(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만 충남도의 경우 모두 2,430개(2,300ha)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농가수 2,197개(2,083ha)와 비교할 때 10.3%(10.4%) 증가한 것이다.

3. 오리농업의 경제성

오리농법으로 소득이 660㎡(200평)당 1백여만원으로 일반농업에 비해 배 이상 많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 부수적으로 오리를 기르며 얻는 소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농가소득이 늘어날 전망이다.



▶ 오리농법에 의한 유기농 쌀재배 사이클



▶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4. 오리농법의 효과

1) 잡초방제효과

⇒ 잡초를 먹는다.

⇒ 진흙 속에 있는 잡초 종자를 먹는다.

⇒ 발이나 부리로 흙탕물을 일으켜 싹트기 시작한 잡초 종자를 수면에 뜨게 하거나 작은 풀을 밟아 버린다.

⇒ 오리의 배설물과 흙탕물이 잡초의 싹틔음을 억제한다.

⇒ 계속된 씨레질과 중경 탁수효과에 의한 흐린 물이 논면에 내려 쪼이는 태양광선의 조도를 내려가도록 하여 잡초의 광합성을 저해한다.

2) 해충방제효과

⇒ 벼멸구, 거미, 진딧물 등의 마리수를 비교하면 거미의 수가 오리를 방사한 논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리가 벼 포기를 흔들어 위쪽에 붙은 벌레도 수면으로 떨어뜨려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다.

3) 씨레질과 탁수효과

: 오리는 부리나 발 또는 가슴으로 논흙을 각반 중경합니다.

⇒ 논물을 저어주기 때문에 논물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량 증가

⇒ 흐린 물의 각반으로 분해 촉진

⇒ 가스 장해 완화

⇒ 수온이 상승함에 따른 보온효과

⇒ 밟아한 잡초 싹을 덮어 생장억제

4) 양분공급효과

⇒ 오리는 해충과 잡초 등을 먹고 배설물을 논에 유기질 비료로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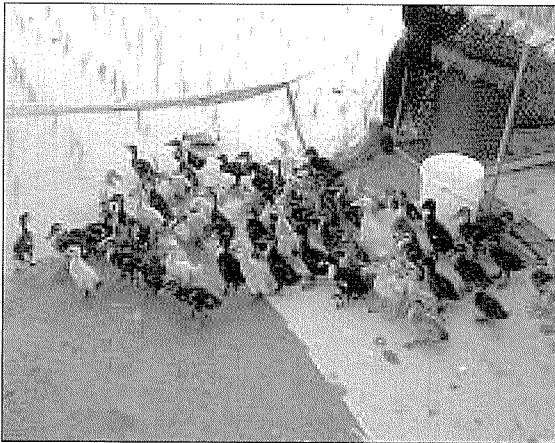


5) 벼잎 자극효과

⇒ 부리로 포기사이를 쪼거나 몸으로 건드려 벼 포기가 자극을 받아 강해진다.

6) 병균방제효과

⇒ 오리가 벼 사이를 활동하며 늘어진 잎을 제거하게 되어 통풍이 잘 되므로 병균이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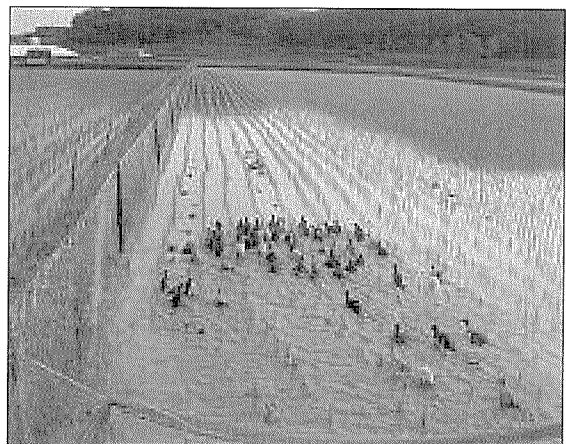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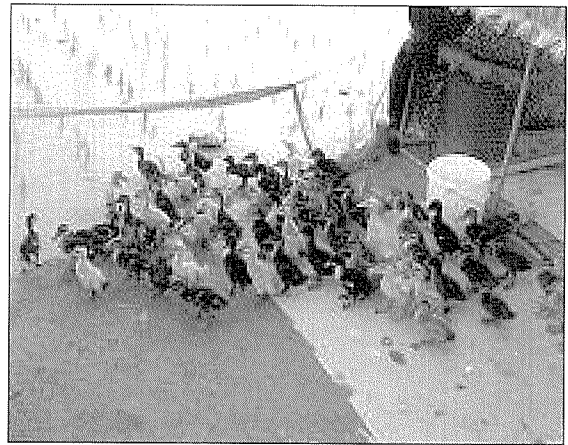
위해서는 3~4주령 때 방사하는 것이 적당한데 방사 전에 어린 병아리의 적응을 위해 2주령 정도 된 것을 벼 이앙 후 15일 경 구입하여 사육하여야 한다.

2) 오리 종류

⇒ 오리의 활동으로 벼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몸집이 작은 청둥오리나 청둥오리와 집오리의 잡종, 또는 카키캄펠종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3) 적정구입수

⇒ 300평(10a)당 25~30마리가 적당하다. 방사



5. 오리농법의 실제

1) 오리병아리 구입

⇒ 벼에 피해를 안주고 오리방사효과를 높이기

마리수가 많을 경우는 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먹이가 부족해 사료를 많이 공급해야 하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달아날 우려도 있으며, 방사 마리수가 적을 때는 오리방사 효과가 떨어진다.

4) 방사시기

⇒ 방사시기는 모의 활착 정도, 모의 크기, 기상, 벼의 작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너무 늦을 경우 잡초가 너무 커서 방제가 어려우므로 이앙 후 2~3주 후에 방사하는 것이 무난하다.

5) 오리 철수 시기

⇒ 벼 이삭이 패고 익어가기 시작하면 오리는 성체가 되어 먹는 양이 늘고 눈에는 먹이가 떨어져 이삭을 먹기 시작하므로 이삭 패기 직전에 오리를 거두어들여야 한다.

6. 오리농법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한동안 급격히 늘어나던 오리농법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시기가 있는데 이는 오리의 입식시기에 따라 제초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만일 오리를

늦게 회수할 경우 막 패기 시작한 벼를 먹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리의 습성 및 입식시기와 입식할 오리에 대한 공급량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 자란 오리에 대한 판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각지자체에서 오리농법에 따른 각종 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오리농법에 필요한 저렴하고 반영구적인 자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7. 오리농법의 농산물과 우리의 건강

오리농법은 말 그대로 우리 농업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세계 최고쌀을 개발하는데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질 개발에 이어 오리농법을 이용한 무농약 농사와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시비는 장연상태의 건강한 쌀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바로 웰빙형 농산물 즉 주식에서부터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섞이지 않은 무공해 식단을 제공해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보여진다.

